

우리 교육

우리 미래

현장 진단 - 내일의 교육

「만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날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지난 일요일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2학년과 초등중 2학년 그리고 신암초 6학년의 한 학급을 선정해 질문시간에 던진 질문이다.

「희망사항」에 관한 질문은 예상외로 2학년들은 의외의 답변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낼 것 같다. 우리들은 노는 것에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는 날이 하루라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루가 다 지날 것 같다」

이들 학년의 답변에는 공통의 중점감 때문에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점과 「공부」에 관한 답이 있었다.

학원생의 입장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에 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히 재미있게는 못 다아니고 그렇다고 앉아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보람 있는 일요일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밤늦게 부랴부랴 숙제

이들의 대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평일보다 좀 늦게 일어나 TV를 보거나 교회 또는 성당에 다니거나 친구들과

일요일은 휴일답게 보내도록...

실제로 밤이 늦어서야 숙제를 시작해 새벽에야 잠 자리에 든다.

이런 학생들에게 사실 일요일은 대부분 휴회와 자책감을 일으키는 날로 비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학입시 부담이 될 한 중학생은 어떻게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 걸까.

「별다른 일이 없다. 조금 쉼만 하지만 시간 보내는 방법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별다른 일이 없다. 조금 쉼만 하지만 시간 보내는 방법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7월의 주제 「너는 것도 공부다」

시험중압감·휴식도 놀이도 어정쩡

오락 TV 낮잠 탈피 다양성 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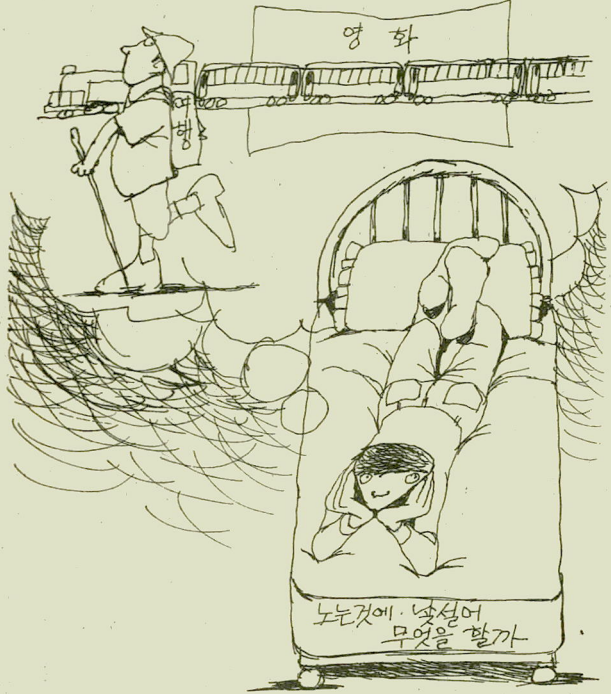


그림 白寅洙

다. 일요일은 그저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

물론 시험준비를 하거나 등산 나시 친척방문 등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집에 서 있거나 잠을 자거나 지루한 경우가 훨씬 많

다. 대부분의 신약교교생들은 일요일을 집밖에서 보낸다. 학원에 가거나 친구

행에 배 등산 운동 등 적어 도 종교생에 비해 TV나 오락에 매달리는 경우가 오히려 적다.

특히 이들의 희망사항은 엑스포 관람 아프리카 방문 농사 서커스 구경부터 시작

해 고아원 방문 원로서평 과일가게 경영 등 해아릴 수 없을 정도다.

△嚴圭白(양정고교 교장) △李完周(서울신석교교 교장) △李元寧(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片光範(서울고교 교장) △韓駿相(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협동놀이로 知德體 기르는게 자녀에 대한 최대 투자



金元柱

전문가의 견해

도킨스는 아이들이 놀기도 잘 놀다. 그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지도자가 되어 친구들 사이에 유익을 서운한다.

사람에게는 知育뿐 아니라 德育 體育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놀이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소극적인 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는 여럿이 어울리는 협동놀이를 통해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다. 자연속에 어우러지면 푸근한 심정도 얻을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놀이를 통해 얻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창조적인 놀이로 보낼 수 있도록, 송은리체내주어보자.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오늘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만 놓아두지 못한다. 아이들만 보면 무조건 「공부하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알 것이다. 지금의 자신들을 만들 것의 80%는 놀이였다는 것을... 또 어른 어른들 배꼽친구들과 떠돌던 기억, 수박사리하던 기억,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숨바꼭질하던 기억들을 잊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어른들이 시간 낭비로 여기는 아이들의 놀이야말로 큰 공부가 되는 활동이다.

어린이 캄노를 가보면 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 현명한 물에 신장질만 가

「心身균형 잡아야」

우리의 학생들의 창의력

이 연구회 李相奭연구위원(32)은 「놀이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귀중한 체험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